

인도네시아 플랫폼 오토바이 택시 기사 이야기 ②

치거나 치이거나, 열악한 근무 환경과 불확실한 수입

샤리프 아리핀 Lembaga Informasi Perburuhan Sedane

*샤리프 아리핀 활동가의 플랫폼 오토바이 택시 기사에 관한 글을 세 달에 걸쳐 내보냅니다.

열악한 근무 조건은 온라인 교통수단의 두 번째 특징이다.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는 뜨거운 태양, 공해, 바람과 비를 맞으며 길거리에서 일을 한다. 일반적으로 도로는 움푹 패여 있고 밤에는 조명이 좋지 않다. 길거리에서 오토바이 택시 운전자는 다른 차량과 경쟁하기 때문에 ‘치거나 치이거나’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예를 들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교통사고 건수는 증가해, 2023년에는 11만 6천 건에 달했다. 2021년 7만 건, 2022년 94,617건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 중 77%는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였다(Dephub.go.id, 2023.9.19; Indonesia.go.id, 2024.1.1.).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는 유연한 시간과 장소 설정으로 수입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매력으로 내세우며, ‘언제 어디서나 수입을 관리할 수 있다’는 슬로건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는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가 주문을 받아 목적지에 도착해 배달을 완료했을 때에만 해당되는 말이다. 이런 슬로건은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가 충분한 수입을 얻지 못하면, 부지런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라는 말과 같다.

이 플랫폼은 ‘수동 입찰’ 및 ‘자동 입찰’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가 주문을 ‘수락, 무시 또는 거부’하거나 ‘자동 수락’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다. 상품, 사람, 음식 등 주문받을 때, 배달할 주문 유형도 알려준다. 또한 플랫폼은 주문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플랫폼, 특히 대면 배송의 경우 배송할 물품의 부피와 무게는 제공하지 않는다. 배송기사는 소비자와 접촉한 뒤에야, 물품의 부피와 무게를 알 수 있다.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가 냉장고를 배달하는 등 오토바이의

용량을 초과하는 물품을 배달하도록 강요받는다라는 정보가 널리 퍼져 있다(Tribunnews.com, 2017.2.27; Detik.com, 2020.12.3).

또 ‘무시’, ‘거부’, ‘취소’를 선택하면 드라이버 계정의 레벨, 실적, 등급에 영향을 미쳐 다음 기간에 주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은 소비자와 알고리즘 시스템을 대신하여 애플리케이션 포기부터 드라이버 해지까지 다양한 처벌 메커니즘을 마련해두었다.

예측 불가능성, 온라인 교통 시스템의 특징

예측 불가능성은 온라인 교통 시스템의 세 번째 특징이다. 이 경우 오토바이 택시 기사가 날롱(야간에 영업하는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을 많이 이용할수록 예측할 수 없는 근무 조건이 더 커진다. 그들은 조명이 좋지 않은 밤에 길거리에서 일하며 때때로 가짜 주문을 미끼로 한 강도를 마주하기도 한다. 주문을 받을 때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 기사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배송하고, 사고를 피하고, 소비자로부터 나쁜 평가를 받지 않기를 바라며, 새로운 주문을 받거나 즉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주로 한다. 하지만 이는 예측할 수 없는, ‘바람’일 뿐이다.

오토바이 택시 노동자의 배달 거리와 임금 계산은 ‘파트너’와 ‘계약상 독립’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알고리즘을 통해 규제된다. 플랫폼에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토바이와 핸드폰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오토바이 택시 기사는 업무 도구를 소유한 독립 계약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사실상 운전자 신체의 연장이다.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와 플랫폼 간의 관계에만 주목하면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를 노동의 일부로 분류해야 할지 고민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정부나 근로감독관도 2008년 중소기업에 관한 법률 20호와 2013년 파트너십 이행에 관한 정부 규정 17호를 참고하여 가짜 파트너십을 적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파트너십이라며 계약상의 독립성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주문 배정과 기사 관리 등에서 플랫폼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중립적으로 보이는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용어보다 온라인 운송업체를 사용자로 정의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 